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실과 현상을 매개로한 직관적
회화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지현

사실과 현상을 매개로 한 직관적
회화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유근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지현

인 준 서

김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장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현 시대에 본인이 외부로부터 수집한 정보로 발발한 감정과 상상, 그리고 실제적 정보의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직관을 가지고 회화적인 연결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나쁜 든 중대한 의미를 주는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공해 준 결과로서, 엄청난 시대가 열린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사건 중에는 우리 삶에서 행복과 번영으로 이끄는 것도 있지만 공포와 파멸로 이끄는 것도 있다.

세계는 지금 보여 지기를 바라고 있다.

어느 날 다가온 어떤 사실과 현상으로서의 실체들을 가지고, 본인은 내밀성의 차원과 충일성의 차원의 깊이인, 한 연금술사의 꿈을 꾸었다. 이러한 끊임 없는 꿈을 작업으로 다시 확장시켜 여러 실체들을 만나게 해주는 문이 되었다. 꿈(몽상)의 시작은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다. 한 화면에 꼭 찬 나의 꿈(몽상)들은 어떤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담고 있다. 틀에 고정된 앞에서 극의 장면과 장면이 순환되어지는 것 같이, 많은 이야기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꿈의 확장과 감정을 최대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매개체로 음악이 필요했다.

본 작업의 시작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록들에서 출발하여 몽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이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매개체는 본인에게 몽상의 모티브를 제공해 주었다.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대상을 어떤 형태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책 속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만날 때나, 순간적인, 찰나와 같은 스쳐지나가는 모호한 생각들의 경계에서 본인은 현실과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은 관객(감상자)으로 하여금 그 속으로 들어오게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방식의 형식은 어떤 현상의 함축과 은유로서, 작품이 내용을 직접 전달한다 하기보다, 감상자에게 상상력을 불러 일으켜 각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게 표현되었다.

목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태도가 형식이 될 때.....	4
2. 내안의 울림을 찾아서.....	12
3. 생각의 확장.....	14
4. 작품 설명	17
III. 결론	22

작품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intuition and insight 1, 장지에 수묵채색, 167×137cm, 201125
[작품 2] intuition and insight 2, 장지에 수묵채색, 167×137cm, 201126
[작품 3] intuition and insight 3_inflow, 장지에 수묵채색, 137×167cm, 201227
[작품 4] movement, 5×7cm, ink jet print 201328
[작품 5] 변이1, 137×167cm, 장지에 먹, 201329
[작품 6] 한 장면_증발, 167×270cm, 장지에 수묵채색, 201330
[작품 7] 바다 한접시, 135×13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31
[작품 8] pollutant, 91×116.8, 장지에 혼합재료, 201532
[작품 9] pollutant 2, 91×116.8cm, 장지에 채색, 201533
[작품 10] Ark party, 75×190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11] 바다 속 향연, 75×190cm, 장지에 채색 201534
[작품 12] 글꽃, 91×116.8cm, 장지에 호분, 201535
[작품 13] 바다 한접시, 91×116.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36
[작품 14] recycle food, 36×32cm, 장지에 혼합 재료, 채색, 201537
[작품 15] Always watching, 36.5×31, wood on canvas, 2015	
[작품 16] squid ink spaghetti,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38
[작품 17] Last side dish, 135×135cm, 장지에 채색, 201539

I. 서론

본 작업의 연구는 사실적인 현상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오감을 통하여 얻어진 산물에 대한 찰나의 감각으로부터 출발해, 화면으로서 마주할 때 증폭되는 여러 감정의 울림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있다.

하나의 회화 작업이란, 사실에 사실을 더해 이루어진다고 보다, 사실에 작가의 상상이 더해져 이루어진다. 그림을 현상 그대로 베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과 작가의 감정이 결합하여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

중요한 것은 우연의 효과이거나, 혹은 예술은 요행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말한다면, 우연의 행복과 같은 창조적인 힘인, 영감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본인의 마음에 모든 사물의 빛과 찬란함을 투영시키게 해주는 실재적 사건의 기록들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어떤 내면적 이끌림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시를 읽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닿았을 때 생기는 반응에 대한 태도와 같은 것이다.

본론 II-1 에서 앞으로 언급하게 될 ‘태도가 형식이 될 때’ 라는 것은 물질화 할 수 없는 개념, 과정, 그리고 본인의 내적인 태도 자체를 작업의 근간으로 삼은 자연스러운 귀결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언어적인 작업을 중심으로 작품이라는 물리적 실체보다는, 작품이 발발한 과정을 통해 본인의 사고와 태도를 드러내려고 한다.

본론 II-2 에서는 ‘내안의 울림’이라 칭했는데 그것은 갑작스런 ‘정신의 융기’라 말하고 싶다. 예술은 사물을 보게 해주는데 있다. 재현 하는 사물이 아니

라 내가 취급하는 사물, 이를테면 화가의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깔나게 화면에 옮기며 표현되는(입혀지는) 것들 말이다.

캔버스는 부재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 내가 입히고 난 행위 속결과만이 남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한 감각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음악으로부터 받은 강한 인상이 상상과정에 더해져 나에게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었고 그것은 내안의 파장(波長)의 결과를 낳았다.

대상을 관찰하는 것에서 촉발되지만, 대상이 주는 또 다른 시각에 입각 하여 자신의 원형에서 비롯된 감정의 이입으로 대상과 나를 마주할 때에야 진정한 것이 되었으며,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화가 쉽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의 이미지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 객관적 실체, 소리가 마음의 자극을 이어주고 사실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다. 잔잔한 물 위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의 파장, 즉 내면적이면서도 정신적인 것에 대한 자극의 결과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나는 그것을 ‘울림’ 이라는 내면적인 정서적 태도라고 말하고 싶다. 이미지를 통한 전달과 방향의 제시 그리고 ‘울림’은 작가와 관객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나 공유하는 것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다. 내가 말하는 ‘울림’은 우리 자신 존재의 심화(深化)에 이르도록 한다. 작업을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울림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그 자신만의 작업을 이루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림과 음악 등 예술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이성이 배재된, 오로지 그려진 그림이 기사와 같이 객관화를 지니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각자의 오감이 작용하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의 방식들이 순환 하고 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들의 시적인 사유의 방식이 되겠다.

본론 II-3에서는 ‘생각의 확장’이라는 잊고 있었던 한 기록물에서부터 출발한다. 본인이 작업을 시작하고 끝맺는 과정 속 끊임없는 생각들은 잔잔한 물위로 떨어진 한 방울에 퍼져나가는 아름답지만 의로운 파장이다. 본인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상상의 결과인 동시에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촉매이다. 상상력이 이미지를 낳고, 또 다시 이미지는 상상력을 촉발시킨다. 상상에 대한 이미지는 또 다른 파장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파편들을 서술하고 있다.

본론 II-4에서는 앞에서 나열한 **본론 II-3**의 내용들의 보완적인 글로, 작품 설명이 되겠다.

II. 본 론

1. 태도가 형식이 될 때

나는 책 한 권을 읽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린다. 한 문장, 한 문장 글을 읽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만화를 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살아가는지 늘 궁금했었고, 그런 사소한 궁금증이 많아서 일까?

한 추리소설 전집 읽기를 시작으로, mystery 하거나 희귀한 일 또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의 영화나 책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관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글 안에서 무한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즐거움이, 지금의 나에게는 언어를 이미지화 시키는 습관을 몸에 베이게 하였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나만의 어떤 상상이나 순간의 느낌을 화면에 넣어 작업을 감각의 확장을 시켜 진행하게 되었다.

베르그송(Bergson, Henri, 1859-1941)이 창조의 표징으로 생각했던 창조의 기쁨에 나도 참여한 걸까.

“창조는 문장이라는 가는 줄을 따라, 표현의 순간적인 삶 가운데 이뤄진다”. 라는 베르그송의 말은, 우리는 떠오름의 경험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조그만 범위의 떠오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떠오름은 되풀이 될 것이라 한다.

그러한 떠오름이 나에게는, 화가들에게 중요한 에스키스(esquisse)와도 같다.

마르셀 프루스트 (Marcel proust, 1871-1922)는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루어진 주제들이나 채택된 형태들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방식, 즉 보는 방식이며 듣는 방식이며 느끼는 방식이다.¹⁾라고 말하고 있다.

현대세계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인류가 가졌던 자연에 대한 공상과 전설, 유행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호기심으로부터 달아나고 -인정하지 않고- 엄청난 이성과 합리적 논리의 체계로 무장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

일상의 삶에서 예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장 그르니에(Jean Grenier,1898-1971)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행을 하기도 하며,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간다. 때로는 고독이나 침묵 혹은 비밀로 인해 사람들과 단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 이 모든 존재 양태들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표면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들을 분석해 보면, 일상생활로부터 삶의 결(style) 자체로 넘어가는, 나아가 예술 작품에까지 다 다르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오솔길이 드러난다.²⁾

장 그르니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작업을 시작 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오솔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던 두 시간 이라는 긴 시간을 기사검색이나, 다양한 창밖의 이미지를 나름의 방식대로 캡처(capture) 한다.

그렇게 캡처(capture) 된 이미지들은 나의 작업에 도움이 되곤 했다.

1) 진길심, Marcel Proust의 A la recherche 여 temps perdu 에 나타난 감각체험을 통한 예술창조의 세계, 전북대학교 전북대학원 불어 불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2.p5

2)장 그르니에, 일상적인 삶, 김용기 옮김, 민음사, 2001. p10

작업의 시작은 주로 다큐멘터리 시청에서 떠오른 것을 기록한 것들과, 산책길에 찍은 사진, 혹은 영화관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과 각종 기사와 다양한 책들에서 얻은 자료들, 또는 나의 일상 속생활과 주변의 환경을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생각을 확장시킨다.

그러므로 작업구상에 있어서는 찰나의 느낌과 생각을 중요시 한다.

어떤 장소에 가서 느낀 장면과, 스치는 장면, 다양한 매체 속의 장면들은 나의 작업의 중요한 소재이지만 그것들을 한 화면에 옮기며 채색할 때도 역시 그러한 집중력을 끌어내는 방법에 나는 ‘음악’이 필요했다.

어릴 적 한 뮤지컬을 보고 내 꿈은 오랫동안 ‘무대연출가’ 이었다.

조명, 음악, 사람들, 환호, 빛 등 모든 것은 환상 그 자체였다.

나는 음악의 첫 음과 클라이막스(climax)를 좋아한다.

내가 생각하는 음악의 클라이막스는 화음인데, 다양한 소리가 섞여 한데 어우러지며 증폭하는 최고조의 음이다. 이런 부분은 내 안 저 밑에 있는 울림을 끌어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화면을 구성할 때는 그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 비어 있는 화면이 가득 차는 순간이 좋았다.

마치 무대에서 빈 공간이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사물과, 화면이 바뀌며 다른 공간이 생겨나 듯 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일까? 그래서 결국 빈 공간이 생기면 자꾸 무언가를 채워 넣었다.

나는 내 작업이 음악과 문학 속의 이미지를 통해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오케스트라(orchestra)적 화음 같은 감성이 작품에도 나타났으면 한다. 화음이 다양한 소리가 섞여서 증폭시키듯이 내 작업 속 짝 찬 이미지들도 다양한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어우러짐의 결과를 만들고 싶다.

음악에 대한 서정과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웅장함을, 또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맴도는 시적 상징과 은유를 직관적³⁾으로 담아내고 싶다. 회화에 있어

3) 직관적 인식은 우리가 감각에 주어진 자연물을 일정한 관계에서 파악함으로써 지각을 하게 되는 가운

서 직관은 상상력을 통하여 작품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직관은 어느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없이 떠오르기도 한다.

일상 속에 넘쳐나는 이미지들은 이제 개인적 의사소통의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 전달의 도구가 되었다. 그런 이미지는 우리 생활의 도처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 생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무심히 여행지 사진을 보고 있었다.

뉴욕이었는데 옆에서 보시던 엄마가 “뉴욕에 쥐떼가 나왔대, 엄청나게 많이! 한번 읽어볼래?” 하며 건넌 노트북에는 뉴욕 시에 나타난 꿀칫덩어리 쥐들에 관한 기사였다.

황당하기도 하고 재미있으면서 문득 작업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작업은 뉴욕에서 일어난 아리송한 사건이었다.

다음은 쥐 득실거리는 뉴욕 맨해튼이란 기사내용이다.

『주민 “때로 몰려다니면 마치 도로가 움직이듯 보여”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엄청난 규모의 쥐떼가 창궐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뉴욕 맨해튼의 엠파 이스트 사이드 지역에서 쥐떼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으며 쥐들이 아파트와 상점, 자동차 속까지 헤집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엠파 이스트 사이드는 맨해튼 북부 센트럴파크와 이스트강 사이 지역을 말한다.

주민들은 예전에도 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쥐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수 십년 만에 최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데, 그러한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대상의 내적인 것 까지도 파악하는 정신적 활동이다. 즉 직관이란 예술가의 가장 우월한 능력으로 상상력에 의해 인식대상과 일치 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 감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즉각 통찰 할 수 있는 이지적 공간이다.

1976년부터 세컨드 애비뉴 동쪽 93번가에 살고 있는 월터 존슨(60)은 “쥐떼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 마치 도로가 움직이는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맨해튼 식료잡화점은 판매대 음식을 모두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팔고 있으며, 한 주민은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했다가 쥐가 차 전기배선을 갉아먹어 엄청난 수리비가 나왔다고 밝혔다.

맨해튼 주민들은 지하철 공사가 시작된 3년 전부터 쥐떼가 증가했다며 뉴욕 교통공사(MTA)에 원인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공사업체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주위에 버려진 빌딩에서 쥐가 번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철 공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쥐를 줄이려면 빈 건물부터 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측과 공사업체 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처를 잘 옮기지 않는 쥐의 습성으로 미뤄 볼 때 지하철 공사 중 일어난 폭발을 피해 쥐가 거리로 나왔다는 주민들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뉴욕시 보건위생국에서 쥐 퇴치 전문가로 일하는 바비 코리건은 “공사와 쥐떼 출몰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⁴⁾

나는 버릇처럼 상상이 시작되었다. 쥐를 생각하니 페스트로 한때 몰락했던 프랑스가 떠올랐으며, 성경 속 글귀가 떠올랐고, 나는 기사 속 그 쥐Ep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밤 8시 이후의 뉴욕의 거리는 낮에 본 화려함은 사라졌다. 음습하고 지저분한 시간이 찾아온다고 느꼈던 지난 2달간의 뉴욕생활이 떠오르면서, 한 시민이 쥐떼가 도로처럼 보였다는 인터뷰에 묘하면서도 재미있단

4) 쥐 득실거리는 뉴욕 맨해튼 ,주민 “때로 몰려다니면 마치 도로가 움직이듯 보여”, 뉴욕, 2010-04-28 09:40:36, 수정 2010-04-28 09:40:36, 조풍연 기자 jay24@segye.com

발칙한 상상을 하며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한 발상은 이렇다. [작품1] , [작품2] , [작품3]

‘알츠 쥐의 광기 어린 도망침은, 질서정연하게 무리 지어 한 거대한 도로를 만들다.’

이런 재미있는 상상력을 준 이 기사는, 다양한 검색을 통해 인간의 탐욕스런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들의 악순환이 보이게 해주었고,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로도 보였다.

남들은 읽어서 무심히 넘길만한 내용일지는 몰라도 나에게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과 산과 계곡을 자주 갔었고, 산과 계곡에서는 개구리 알과 도롱뇽, 알 ,나비, 벌 , 풍뎅이 송사리 등 다양한 곤충들을 아빠는 집으로 가져와 언니와 나에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고, 엄마와 함께 곤충관찰 일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 아빠는 나비나 벌 사마귀 장수하늘소 등 다양한 곤충들이 죽으면 곤충 채집 장 표본을 손수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어렸을 적 기억 때문인지 자연 속살아 숨 쉬는 작은 생명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다.

처음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쥐떼들의 출몰.

‘마치 도로처럼 보였다’는 재미있는 표현의 인터뷰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흑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이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토끼구름 ,나비구름 같은 형태이미지 상상(순간적 직관)같은 생각을 말하거나 듣기를 좋아해서 이 있을까?

실제적 특성을 초월하여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발상 말이다.

기이한 현상의 뉴스를 접하고, 그 현상을 표현하고 알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이 땅에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각

자 한번쯤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우리가 목표로 삼는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반 고흐 작가는 “관객이 세상의 어떤 측면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화가의 증표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마티스와 피카소는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느낌을 전해야 한다는 것(말라르메의 유명한 문구를 따르자면 “사물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상을 그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꾸준히 성장하는 프랑스 화가들의 집단에 속했다.

또한 둘 다 그들을 둘러싼 세계의 물리적인 현실보다는 정신적인 현실을 강조하고자 갈망했다.

이 쥐페 작업을 시작으로 조금씩 의식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다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텍스트의 느낌을 이미지화 시키는 습관에는 순간에 드는 생각들을 기록을 해 놓는 것인데, 기록에는 전반적인 색감과 간단히 떠오르는 이미지 스케치이다.

『초벌그림이 스케치가 되고 스케치가 유화가 되듯, 최초의 모호한 생각을 다듬어 감에 따라 그리고 최초의 덧없이 지나가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감에 따라 그 목표는 더 명확해 질 것이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⁵⁾

작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순간의 느낌과 감정을 잘 기억해 놓는 것인데, 사실 드로잉을 다시 큰 화면으로 옮기고 나서 채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전의 기록적인 생각들은 잊게 된다.

그리는 동안에는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이것을 왜 그리는가에 대한 생각이 고통스럽지 않았다.

일단 무언가 떠오르면 작업을 시작 했었는데 아마 내가 생각한 이미지를

5)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지음, 신성림 옮김, 예담

나도 보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싶다.

주로 그리는 순간에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작품에 감성적인 것들, 혹은 색감으로 어떻게 잘 녹아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주로 했었다. 이런 고민으로 인해 평소 내가 좋아하는 색감과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와 작품을 많이 보고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일단 나에게만은 본능적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그렸는가.’ 보다 표현과 발상, 색채가 먼저고 다음이 재료, 그 다음이 주제였다. 나는 일단 재료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로 어떻게 사물을 표현했는가 하는 ‘개인적 감성 터치’ 적인 것을 실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실험은 우연의 결과일 수도, 계산된 결과 일 수도 있지만, 결국 본능적인 내 안의 색채와 터치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법적인 것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가장 나답게 표현되는 색채와 터치를 말하는 것이다.

『예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단지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더 깊은 원천으로부터, 바로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솟아 나온 것 아닌가.』⁶⁾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아 이미지화 시켰더니 다양한 소재가 나왔고, 나중에는 주제가 너무 커져버렸다.

주로 순간적인 생각들은 회화 안에서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연출을 통한 사진 찍기나, 직물을 이용한 작업, 다양한 재료와 소재로 ‘왈츠 쥐 프로젝트’를 해 보았다.

6)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지음, 신성림 옮김, 예담

2. 내 안의 울림을 찾아서

이러한 다분히 감각적인 나의 작업진행 방식을 설명하기엔 다소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내가 그리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말로 할 때 그것들은 간단하게만 표현되었고, 그런 간단함 속에서 많은 물음표가 던져졌을 때 나는 뭐라 말해야 할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 대상에 대해 느껴지는 감정들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뿐인데 수많은 이론과, 거기서 더 무얼 찾는 걸까?

나만의 이해가 어떻게 읽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끔 되었다.

내가 보고 느끼며 생각하였음의 결과에 자신감을 얻고 더 발전시키려 한다.

순간의 반짝임에 의존하지 않고 깊숙이 내 안의 이미지를 찾을 때까지 꼭꼭 눌러 담아 펼치고 싶다.

우리는 가끔 낯선 여행지에 머물면서 마치 고향이나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의 관심을 끌고 멈추게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다양한 음악, 글, 그림 등의 작품을 마주할 때가 있다. 그러한 경험이 나에게는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 상상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거리에 흐르는 음악소리나, 사람들의 웅성거림, 공연장의 열기 등은 내 안의 깊은 곳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로 나의 작업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청각이 시각이 되는 지점, 텍스트가 시각이 되는 지점, 어떤 것도 우의에 있지 않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나의 작품의 시발점을 만들어준다.

음악에 의해 촉발된 이미지들이, 프레이즈(phrase)⁷⁾같은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단순한 소리 이상의 것을 느끼는 것, 이런 경험의 실재성을 아론 코플랜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음악을 듣는 기본 방식에는 “긴장과 이완, 농밀함과 투명함, 부드럽고 거친 표면, 음악의 증감, 추진과 지체, 길이, 속도, 뇌성과 속삭임 등과 같은 기본적 반응, 그리고 움직임이나 몸짓과 같은 우리의 신체적 삶, 우리의 내면이며 잠재의식 상의 정신생활” 등이 모두 포함된다.⁸⁾

긴장과 이완, 농밀과 투명함과 같은 최초의 느낌이 상상력을 통해 더욱 강렬해지는 지점이 나에게서는 캔버스에서 터치와 색 복합적인 감정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음악은 예술가운데 가장 추상적인 것으로, 말을 할 줄 모르는 정서에 복종한다.”)라는 아론 코플랜드의 말이 우리 화가들에게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작업에 음악을 한 정신적인 힘의 원동력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삶은 진동이고 파동(ondulation)이며, 한마디로 리듬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활동 역시 당연히 리듬이 있으며, ‘모든 정신활동은 정신의 한차원에서 그보다 더 높은 한 차원으로의 이행이고, 어떤 떠오름도 버팀목을 필요로 한다’ 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 의식, 마음과 같은 정서는 정신적인 산물로서 나에게 내재된 무질서 하지만 , 생각과 느낌을 다채롭게 펼쳐 보이게끔 해준다.

7) [참고] 프레이즈(phrase)-어떤 자연스런 한 단락의 멜로디 라인 (선율선)을 가리키며, 악구 또는 악절이라고도 한다. 악곡의 템포 또는 리듬 그리고 악상에 따라서 프레이즈를 만드는 것을 프레이징이라고 한다.

8) 아론 코플랜드 (안재진), 『음악과 상상력』 (서울 : 교육과학사, 1994), p. 21.

3. 생각의 확장

이 대목에서는 핸드폰 속 메모와 그동안의 조각조각으로 이루어진 생각의 파편들을 가지고, 본인의 작품의 시초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명명하고 확장시키고 환원 하는지에 대해 서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생각의 여지를 품을 수 있도록 하겠다.

Waltz G project. [[p23-26]]

설사 그것이 순간일 지라도
내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즉 간접의 영역.
또는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의 기록들.
세상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뉜다.
거기에 나는 간접적인 어떤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나와 의도치 않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어떤 현상을 간접적으로 접했을 때
나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온갖 의미부여를 시키며 납득해 보려고 한다.
영화를 보고, 티비 화면을 보고, 음악을 듣거나 심지어 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나의 머릿속은 늘 생각과 생각의 꼬리를 물어 그것이 마치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의미 없는 단정을 짓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간접적으로 접한 세상에 대한 순간의 기록을 하기위해

사진을 찍으며 기록을 남긴다.

그것은 나의 회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 코딩하고 인코딩 하는 방식으로 현실에 주어진 어떤 형상들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거기에는 패션도 있고 사회현상도 속해있고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멈추는 행위가 아닌 더 나아가거나 벗어나고 인식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에 따른 소재의 확장은 내가 찾아낸 사회나 어떤 현상을 스스로 인식하려는 나만의 방식이다.

그것을 단지 회화라는 장르 안에서, 내가 그리고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행위 속 '사진 찍기'는 사진의 최종 결과물 보다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창작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한 관심이 되겠다. 즉 더 큰 작품속의 한 요소이다.

"캐서린 넬슨(Catherine Nelson)은 사진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은 화가라는 생각을 고집한다.

그만의 노스텔지어(nostalgia)적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채집된 이미지를 자신의 경험, 감정, 마음에 이입시키는 방식이다. 사진과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저를 카메라라는 붓을 든 화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

After party. 【p27-28】

모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목적은 존재케 하는 것이다.

생존케 하는 생명체

나는 덩어리입니다.

아름답다 하지 못했던 풍경.

아름답다 하지 못했던 시간.

메아리

시간을 향하여

시간을 거슬러

작은 점들의 환상 속으로

작은 물방울이 모였던 시간.

구름이 마치 하늘에서 화재가 난 듯 보였다.

v o y a g e . [p29-37]

인생은 항해하는 삶과 같다.

세상을 여행하는 자.

텅 빈 바다.

60-70년대 “만선”..

배의 창고가 물고기로 가득 차고, 배 위에 쏟아져 내릴 듯 가득 올려놓고,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항구에 들어왔던 때.

바다의 풍요는 무엇이 길래,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

탐식이라는 철학적, 종교적,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요란한 탐식의 시대.

미식은 ‘규탄’과 ‘인간 본능의 식욕’ 사이

4. 작품 설명

만약 우리가 블랙 잉크가 가져다주는 몽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면, 그런 블랙의 세계는 연금술적 염료로서의 힘과 채색적 생명에 의해 하나의 광활한 우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작품들을 기술(記述, écriture)이전, 사물을 그리려는 모든 의지 이전, 기호를 드러내려는 야심 이전에, 마술적인 물질의 내밀한 꿈에 이끌려 채색의 모든 속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검은 잉크는 뽀얀 종이 위에 검게 스스로의 존재를 말하기 시작 할 것이다.

“나에게는 언제나 작품제작이 예견했던 결과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쓴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1820-1963)가 생각한다.

때 묻지 않은 종이 위 검은 잉크와 색이 만날 때, 마치 판화가가 흙을 파고 색을 입히고 다시 입히듯이, 사물들의 미세한 세계, 검은 물질과 흰 물질의 결합 속에서의 친밀한 서로의 부름이 시작될 때의 기쁨을, 작업의 한 기쁨으로 삼게 되었다.

Waltz G project.

한 기사를 보고 순간에 대한 역동적 상상력, 이와 같은 충동들의 환희에는 더 한 층 특수한 특성들이 추가된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대로, 명상하는 존재는 우선 꿈꾸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기사를 보고, 다시 재미있는 문구를 생각해 시작된 몽상의 형이상학은 재현에 앞서는 올바른 위치에 놓인다. 만약 세계가 우선 나의 몽상이 아니라면, 내 작업은 즉각 그 세계의 재현 속에만 한정되어 갇히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세계에 대한 감각과 동일한 시간을 사는 노예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상상된 세계는 (시간적으로) 당연히 재현된 세계 앞에 자리한다.

자기가 가진 재현 능력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존재는 따라서 이러한 순수 견자(見者)voyant pur⁹⁾의 상태를 거쳐야만 하는 법이다.

Waltz G project. 중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는 관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태도는 본인의 몽상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어떤 광경이라기보다는 이야기 이다. 놀랍도록 풍요한 어떤 광경을 관조한다고 믿고 있는 경우, 그것은 실은 너무나 다양한 추억들로써 그 광경을 풍요롭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처음 보여 지는 장면은 ‘뉴욕의 거리’이다.

각기 다른 작은 덩어리가 응집되어 모이기도 흩어지기도 한, 어떤 거대한 덩어리로 표현된 [작품1] 은 본인이 뉴욕에서 느꼈던 개인적 역사와 상징성을 대입시키고 끊임없는 유동적인 아이디어의 시초로 생각했던 결과물이다.

어떻게 보면 무겁고 정지된 화면처럼 보이지만 각기 어디로 향해가고 있다.

[작품2] 는 ‘센트럴파크’라는 특징적인 장소로 옮겨와 한밤중에 생긴 소동으로 아무도 모르는 깜깜함 속 쏟아지고 유입되고 언젠가 다시 모이게 되는 현상을 담고 있다.

[작품3] 은 허드슨 강으로 미국 뉴욕 주 동부를 흐르는 강이다. 뉴욕시를 지나 대서양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채집한 생각들에 ‘왈츠 쥐’(본인의 작업에서 칭해지는 표현)들의 이동을 담아보았다.

이것 또한 유입되고 흩어지지만 다시 모여 큰 하나의 현상을 낳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작품4] 는 본인이 작업의 소스로 활용되는 사진 찍기로부터 시작되어,

9) [참고] 존재의 순수한 상태를 만드는 순수한 몽상에 빠져보아야 한다. 라는 뜻인 동시에, 견자로서 바라보는 대상을 순수견자로서의 몽사가 되어야한다는 뜻.

연출을 통한 결과물이다.

After party.

After party 타이틀에서 파생되어 진 [작품5] [작품6] 속 광경은 구름의 모양을 닮았다.

본인에게 구름은 가상 몽상적인 오브제들 중 하나이다. 구름은 대낮에도 꿈꿀 수 없는 몽상의 대상이다. 구름은 쉽게 덧없는 몽상을 불러일으킨다. 몽상에 잠겼을 때 한 순간 “구름 속에”있다가, 다른 실증주의적인 사람들에게 은근히 조롱을 당하고선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 하늘의 다른 “징표들”에 결부시키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의미를 구름에 부여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몽상은 각별한 성격을 지닌 어떤 심리적인 특징을 부여 받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임 없는 몽상이라는 점이다.

구름은 형태들의 유희가 용이하다는 점에 있다. 구름은 느릿느릿 게으르게 반죽하는 이를 위한 상상적 질료이다. 마치 제 스스로 모습을 잡아가는 가벼운 솜뭉치처럼 꿈꾸어 진달까?

“수분을 머금었기에, 소리를 내고 물기로 번쩍일 뿐만 아니라, 또 동적이기도 한 구름은 동물형태관zoomorphisme¹⁰⁾ 적 유희에 스스로를 던지는 것과 같다.”밤의 동물형태관이 별자리를 통해 고착적으로 나타난다면, 낮의 동물형태관은 구름 속에서 끊임없는 변신을 한다.

After party 라는 작품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party’라는 ‘심리적인’ 순간을 담아내고 있다. 그것은 파티가 끝나고 난 후 광경인지, 파티의 광경인지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다.

10) [참고] 승배의 대상을 동물의 형태로 표상하는 관념.

v o y a g e.

몽상은 눈 [眠] 으로 작업한다.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의지력과 상상력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변화 하는 형태들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마주할 때, 보려는 의지는 보임의 수동성을 극복하면서 가장 단순화된 존재들을(거기에)투영한다. 그때 본인은 지배자이자 예언자가 된다. 그런 작업의 시간 속 나는 순간의 예언자 이다.

작품을 감상하는 자도 이 같은 순간의 예언자가 되어보길 권한다.

[작품 7] [작품13] ‘바다 한 접시’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속초, 오징어 치어 떼의 죽음”이란 뉴스보도를 통해 본인은 우주적 질서를 관조하는 고요한 사유의 세계와, 물질적 욕망에 포섭되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참된 행복에서 멀어져 가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했다.

노를 젓다가/노를 놓쳐버렸다/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공유지’이다. 그런 바다를 한 접시에 담은 형상을 가진 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의 문을 열어 줄 수 있겠다.

[작품 8] [작품 9] 는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으로, 한 우스꽝스러운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맞은편 먹물스파게티를 먹던 친구의 접시를 보고 ‘배트맨’에서 폐수를 토해내던 펭귄이 떠올랐다. 먹물로 인해 회오리치는 듯해 보였던 면발은, 마치 비바람 같았고, 비워진 하얀 접시 위에는 ‘흔적’을 남겼다. 이런 떠오름을 통해 자연현상의 일부로서 ‘pollutant’라 명명하였다.

[작품 10] Ark party 는 성경 속(창세기6:5~9:29, 노아의 방수)내용에 관한 작품이다. (노아라는 말은 히브리 어로 ‘휴식’이라는 뜻이다.) [작품 11] ‘바다 속 향연’이라는 이 작품은 한때 바다위로 떨어졌던 폭격기 폭탄으로 인한, 죽음 보다는 바다 속에 큰 충격과도 같은 파장이 다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장면을 담고 있다.

[작품 12] 는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을 표현한 것인데, 거친 껍데기를 열어 한데 모아놓으니 그 하얀 굴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한 생명의 빛

같았다.

[작품 14] , [작품 15] 는 본인의 작품 제작 과정 중에 남은 재료들을 가지고 다시 재탄생 시킨 작업이다. [작품 14] 에는 지우개 가루, 고무줄, 종이, 끈 과 같은 재료들로 구성되었다. [작품 15] 사용하던 기능을 상실한 숟가락을 가지고 눈을 달아 주었다.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작품 16] 은 치어 떼들과 같은 먼지적인 존재가 식탁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했다. 태풍과 지진과도 같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예쁘게 잘 담겨진 한 그릇의 ‘맛’으로 변모되어 찾아온다.

[작품 17] 은 최후의 만찬을 다시 Last side dish 라 명명 하였다.

얼마 전 방영된 화면을 보고 반찬의 역습의 시대가 오는 걸 느꼈다. 최후의 반찬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식탁을 장식할까? 하는 걱정으로부터 출발 하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로는 예술은 끈질긴 작업,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 작업,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끈질기다’는 표현은, 일차적으로 쉽 없는 노동을 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쏟아지는 질문 속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공격적인 상황이 반복되면서 스스로가 위축되었으며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었고 내안의 꿈꾸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길 기다렸다. 여행을 가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며 기다렸지만 그것들은 표피적인 치유, 즉 그때그때 뿐. 다시 사라지는 것들이었다.

본인은 첫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단 손에 익은 재료들을 과감히 포기했다.

전혀 잘 쓰지 않는 재료들을 내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노력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절망에서 출발하지 않고도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실패를 거듭한다 해도,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해도, 일에 애초에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돌아간다 해도, 다시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야 한다. 위대한 일이란 그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작은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 위대한 일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이를 수 있다. 결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랬느냐 가 중요한 문제일까?

나에겐 왜 밥을 먹는가와 같은 질문이었다.

“배가 고프니 먹지 말입니다. 단지 배가 고프니 아무거나 넣자가 아닌 골라

서 좋아 하는걸 취향대로 먹게 된다 말입니다.”

이렇듯 작업으로 옮길 때 왜 그리느냐에 이유를 찾기보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대상을 본능적으로 찾고 캔버스에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것이 되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앞에, 실마리를 연결 지어 화면을 구성시키는 것이다.

수많은 철학책들은 그때그때 머릿속의 쉼 을 즐뿐, 나에게 어떤 제시나 방향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다. 기적처럼 전시를 준비하고, 전시를 열고 끝맺을 때까지도 내안의 우울함은 그대로 있었다.

두려움이라는 불씨는 나에게 무기력함을 주었고, 무기력함 앞에 포기하고 싶음 마음도 있었지만 이 전시를 마무리 하면서 습관처럼 어떤 규칙적인 버릇을 들이기로 했다.

겨울이 지독하게 추우면 여름이 오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냉혹한 날씨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화장한 아침이 찾아오면 바람이 바뀌면서 해빙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늘 변하게 마련인 우리 마음과 날씨를 생각해 볼 때,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깨달음.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

나의 작업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작가가 보고 느낀 대상들이 고스란히 나에게도 느껴지는 작가들이 있었다. 어떤 시각적인 놀라움에 그치지 않고 작가가 생각하고 느낀 감정이 나에게 음악과는 또 다른 울림이 되었던 시간이다.

나의 생각이 ,내 눈이 보이는 날것에(단편적인 시각)두려웠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수많은 감정과 화면이 만나 이루는 교차점 속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앞으로는 그 두려움이 없다하기 보다는 두 발로 설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다. 하지만 과정에 따르는 결과도 중요하

므로 흔들리지 않고 버티며 부러지는 커다란 나무와는 달리, 흔들리고 떨어지고, 다시 돌아나는 나무처럼, 하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있는 나 가 되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인 것 같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도 책을 쓴 작가가 사물을 더 넓고 더 관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어서 이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금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림이란 게 무엇일지, 어떻게 해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서있는, 보이지 않는 철벽을 뚫는 것과 같다. 아무리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는 그 벽을 어떻게 통과 할 수 있을까? 인내심을 갖고 삼질을 해서 그 벽 밑을 파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규칙이 있다면,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위대한 일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이룰 수 있다. 결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무한하게 비어있는 여백, 우리를 낙심케 하며 가슴을 짝어놓을 듯 텅 빈 여백을 우리들 앞으로 돌려놓는다. 그것도 영원히! 텅 빈 캔버스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삶이 우리 앞에 제시라는 여백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어서 쉽게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관에 맞서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간단히 말해,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과,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 도판] Waltz G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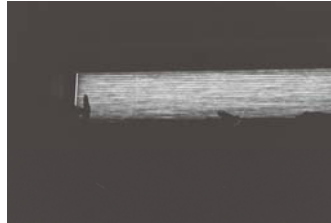
[작품1] intuition and insight 1, 장지에 수묵채색, 167×137cm, 2011



[작품 2] intuition and insight 2, 장지에 수묵채색, 167×137cm, 2011



[작품 3] intuition and insight 3_inflow, 장지에 수묵채색, 137×167cm, 2012



[작품 4] movement, each 5×7cm, ink jet print 2013

[작품 도판] After party.



[작품 5] 변이1, 137×167cm, 장지에 먹, 2013



[작품 6] 한 장면_증발, 167×270cm, 장지에 수묵채색, 2013

[작품 도판] v o y a g e



[작품 7] 바다 한접시, 135×13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작품 8] pollutant, 91×116.8, 장지에 혼합재료, 2015



[작품 9] pollutant 2, 91×116.8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10] Ark party, 75×190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11] 바다 속 향연, 75×190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12] 굴꽃, 91×116.8cm, 장지에 호분, 2015



[작품 13] 바다 한접시, 91×116.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작품 14] recycle food, 36×32cm, 장지에 혼합재료, 채색, 2015



[작품 15] Always watching, 36.5×31, wood on canvas, 2015



[작품 16] squid ink spaghetti, 116.8×91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작품 17] Last side dish, 135×135cm, 장지에 채색, 2015

참 고 문 헌

단행본

장 그르니에, 일상적인 삶, 김용기 옮김, 민음사, 2001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고흐 지음, 신성림 옮김, 예담

아론 코플랜드, (안재신), 『음악과 상상력』 (서울 : 교육과학사, 1994)

공간의 시학,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東文選

ABSTRACT

Study on the intuitive painting by the fact that
the phenomenon mediated

-Centering around My Work-

Kim, Ji-hyun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principal is to imagine the emotion that broke out in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the outside in the current era, and, it is to narrative a process that forms a pictorial connection with the intuition that takes place on an analysis of the substantive information .

We have thought that any such incidents was born in enormous era whenever that occurs. In in our lives, it has occurred one after another incidents that have a significant meaning for better or worse in each one of us. Such incidents, provides us with a number of possibilities to us, as a result, can also be thought of as huge age is opened. However, such is in the incident, but sometimes that leads to prosperity and happiness in our lives, it is also possible to lead to ruin and fear.

The world wants to show now.

With a body as some of the facts and symptoms that are closing in on one day, the person is the depth of the total of dimensions and vibrant property dimension, I had a dream of one alchemist. These incessant dream was re-extended to work, it has been a door that will meet the multiple entities. The start of a dream (dream) is the same as that inform the stage of start. My dream became a full one screen (dream) contains what rhythmic movement. As before poles of the scene and the scene is fixed to the frame is circulated, a lot of talk has been wriggling. And the music was necessary in the medium capable of raising the extension and emotions such dream up.

The start of the operation, would be to go through the dream process starting from a recording of a fact base. In other words, the objective medium that the reason the base has provided us with the dream of the motif in person. It is not to grasp an object that will provide images as any form, it is to understood as a substance. And when you meet a lot of the images that are sleeping in the book, instantaneous, in the pass each other ambiguous idea of the boundary, such as the moment, the principal reality is believed to go to create a different world with. Then, such a result is intended to be induced to come into it by the audience (viewer). Thus, as the meaning and metaphor of what a phenomenon form of working methods, because the work is to transfer the contents directly, and more, to awaken the imagination the viewer, it has been symbolic metaphorical this expression so that it can be passed to each .